

# “체력·경기 능력 향상 내년 시즌 기대하라”



마무리 캠프 마친 김기태 KIA 감독  
개개인 능력 파악 잘돼 효율높은 훈련 진행  
신인부터 중고참까지 전반적으로 발전

“선수들의 체력과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좋아졌다. 내년 시즌이 기대된다.”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캠프가 지난 28일 종료됐다. 10월28일 일본 오기나와 긴구장에 캠프를 차렸던 KIA는 28일 귀국길에 오르며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캠프는 2016시즌을 위한 체력과 기술 강화 그리고 팀 전력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진행됐다.

투수 정용운과 외야수 이정현이 각각 허리 통증과 대상포진으로 중도 귀국했지만 큰 부상 없이 성공적으로 캠프가 끝났다는 평가다.

김기태 감독은 이번 오기나와 마무리 캠프에 대해 “신인 선수부터 중고참 선수들까지 전반적으로 발전한 게 성과다.

내년 시즌이 기대되는 재미있는 캠프였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기태 감독과의 일문 일답.  
-캠프를 마친 소감은.

▲성실하게 캠프를 마무리한 선수단과 코치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귀국길에 오르며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캠프는 2016시즌을 위한 체력과 기술 강화 그리고 팀 전력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진행됐다.

투수 정용운과 외야수 이정현이 각각 허리 통증과 대상포진으로 중도 귀국했지만 큰 부상 없이 성공적으로 캠프가 끝났다는 평가다.

김기태 감독은 이번 오기나와 마무리 캠프에 대해 “신인 선수부터 중고참 선수들까지 전반적으로 발전한 게 성과다.

에 선수 개개인의 능력 파악이 빨랐다. 효율 높은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과다.

-캠프에서 선수들에게 주문한 것은 무엇인가.

▲우선 체력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인 오전에 웨이트 트레이닝 시간을 배정했다. 훈련을 마치고 녹조가 된 상황에서 웨이트를 하는 것은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또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강조했다. 특히 세밀한 플레이를 주문했다. 우리 팀이 올 시즌 마지막에 5할 승률에 다가가지 못한 것, 와일드카드도 진출하지 못한 것이 다 세밀한 부분에 약했기 때문이다. 이번 캠프를 통해 게임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좋아

졌다.  
-이번 마무리 캠프 최고의 선수를 꼽는다.  
▲어느 한 명이 아닌, 모든 선수들이 다 잘했다. 신인부터 중고참 선수들까지 고르게 발전했다. 한승혁이나 유창식 등 젊은 투수들도 좋았고, 내년 시즌 신인들도 몸상태가 좋았다.  
-향후 계획은.  
▲이번 마무리캠프를 통해 내년 시즌에 대한 희망을 봤다. 이번 마무리캠프 결과와 2차 드래프트, 외국인 선수 영입, FA 결과를 종합해 내년 팀 전력의 밑거름을 그릴 계획이다. 내년 시즌 팬들이 즐겨워 할 수 있는 야구를 하기 위해 준비 잘하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범호 ‘4년 36억’ KIA 잔류

### 포수 차일목은 한화행

FA(자유계약)와 2차 드래프트로 분주했던 주말, ‘캡틴’ 이범호가 KIA에 남았다. 포수 차일목은 한화로 떠났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 28일 내야수 이범호와 계약기간 4년(3+1년)에 계약금 10억원 연봉 6억5000만원 등 총 36억원에 FA 계약을 끝냈다. 이로써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캡틴’으로 활약한 이범호는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얼굴로 남게 됐다.

2000년 한화를 통해 프로에 데뷔한 이범호는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 진출한 뒤, 2011년 KIA 유니폼을 입고 국내로 복귀했다. 팬텀 부상에 시달려왔던 이범호는 올 시즌에는 138경기에 나와 437타수 118안타 타율 0.270, 79타점을 기록하며 꾸준하게 자리를 지켰다. 특히 28개의 홈런을 날리며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다.

-이번 마무리 캠프 최고의 선수를 꼽는다.  
▲어느 한 명이 아닌, 모든 선수들이 다 잘했다. 신인부터 중고참 선수들까지 고르게 발전했다. 한승혁이나 유창식 등 젊은 투수들도 좋았고, 내년 시즌 신인들도 몸상태가 좋았다.  
-향후 계획은.  
▲이번 마무리캠프를 통해 내년 시즌에 대한 희망을 봤다. 이번 마무리캠프 결과와 2차 드래프트, 외국인 선수 영입, FA 결과를 종합해 내년 팀 전력의 밑거름을 그릴 계획이다. 내년 시즌 팬들이 즐겨워 할 수 있는 야구를 하기 위해 준비 잘하겠다.

한화의 내야수 김태균과 포수 조인성도 팀에 잔류한다. 김태균과 조인성은 원소속구단 우선협상 마감시한인 29일 0시를 10분 앞두고 계약에 합의했다. 김태균은 4년 동안 계약금 20억원, 연봉 16억원 등 총 84억원을 받는다. 조인성은 2년 총액 10억에 합의하면서 한국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3번째 FA 계약을 끝냈다. SK도 좌타 박정권과 4년 총 30억, 우투 채병용과 총 10억5000만원에 사인하면서 집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SK의 우완 불펜 자원인 윤길현이 4년 총액 38억원에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됐고, 포수 정상호는 삼성 2억원을 포함한 4년 총액 32억원에 LG로 이동을 했다. 넥센의 외야수 유한준은 4년간 계약금 36억원, 연봉 6억원 등 총액 60억원의 조건으로 kt와 계약을 체결했다.

포수 차일목은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한

화로 동지를 옮기게 됐다. 차일목은 지난 27일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서 한화의 2라운드 선수로 지명됐다. 이에 따라 흥익대를 졸업하고 2003년 KIA 유니폼을 입은 차일목은 야구 고향을 떠나게 됐다.

“KIA에 있으면 팬들한테 잘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고 하니 아쉬움이 많다. 한번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잘 안되더라. 올 시즌에도 최대한 고참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다치기도 하고 민폐만 된 것 같다”며 심경을 밝힌 차일목은 “그래도 야구는 어딜 가나 하는 것은 같고 한화에서 지명했었다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야구로 힘들고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는데 기회가 왔으니 한번 더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싶다. 준비 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V10” 멤버이기도 했던 차일목은 또 “우승 반지 잘 간직하고 있다. 선수들이 잘 믿고 즐겨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엄청 편하고 즐겁게 야구를 하고, 시합 끝나면 선수들끼리 자주 밥도 같이 먹고 그랬다. 우승멤버들이 많이 떠났다. 이제는 전화로만 안부를 물어볼 수 있게 됐다는 게 섭섭하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좋은 기억 안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4일 전체 미팅이 있다고 한다. 고참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새출발을 이야기했다.

차일목은 내보낸 KIA는 2차 드래프트에서 투수 배현천(넥센), 외야수 윤정우(LG), 투수 이윤학(kt)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했다. 2013년 2차 드래프트에서 LG의 선택을 받았던 광주일고 출신의 윤정우는 2년 만에 다시 열린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친정팀 KIA로 복귀하게 됐다.

한편 홈수 해마다 2년 간격으로 열리는 2차 드래프트는 정규시즌 종료일 기준으로 소속선수-육성선수를 포함한 전체 선수 중 40명의 보호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 라운드별 구단 보상은 1라운드 3억원, 2라운드 2억원, 3라운드 1억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 KIA 5일 진월동 메이시앙

KIA 타이거즈가 불의의 사고로 병상에 있는 차영화 코치를 돕기 위해 행사를 연다.

KIA 타이거즈 구단과 선수단 상조회가 내달 5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 빅스포 2층 ‘메이시앙’에서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를 진행한다. 선수단은 유니폼을 입고 서빙을 하며, 포토 타임과 애장품 경매 행사가 나간다. 빅스포 정문에서는 사인볼 등의 판매가 실시된다. 일일호프의 경우 미성년자는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으며 주류 구매도 할 수 없다.

선수단은 사인화도 열고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 사인화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행사장에서 열리며 신종길, 윤석민, 양현종, 심동섭, 한승혁 등이 참가한다.

“저녁식사 경매 이벤트”를 통한 팬 미팅도 준비됐다. 참가를 신청한 팬들을 대상으로 이벤트가 진행되며 식사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차영화 코치를 돕는데 쓰인다. 저녁식사 경매 이벤트는 구단 홈페이지(www.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단도 각종 기념품을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차영화 코치 돕기에 쓸 예정이다.

상조회장인 이범호는 “차영화 코치님이 하루 빨리 완쾌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수들이 스스로 나서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팬이 찾아오셔서 코치님이 쾌차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팀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팀이 대결을 벌인 ‘ING생명 챔피언스 트로피 2015’ 대회 마지막 날이 29일 부산 기장군 베이사이드 골프클럽에서 열렸다. LPGA팀이 14대 10으로 KLPGA 팀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해외파 선수들이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JLPGA ‘한국 독무대’

### 신지에 챔피언십 리코컵 우승...4대 메이저 중 3승 차지

### 이보미 역대 최고액 상금...올해의 선수·평균타수 휩쓸어

함평 골프고 출신 신지에(27·스리본드·사진)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 리코컵(총상금 1억엔)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신지에는 29일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 컨트리클럽(파72·644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의 성적을 낸 신지에는 2위 오야마 시호(일본)를 6타 차로 넉넉히 따돌리고 이번 시즌 3승, 투어 통산 10승째를 거뒀다.

우승 상금은 2천500만엔(약 2억3000만원)이다. 올해 JLPGA 투어 상금 1위를 확정된 이보미(27)는 1오버파 289타로 전인지(21·하이트진로), 테레사 루(대만)와 함께 공동 6위에 올랐다.

시즌 최종전으로 열린 이번 대회 공동 6위 상금 468만엔을 추가한 이보미는 시즌 상금 2억3천49만7057엔을 기록했다.

이미 지난주 다이오제지 에리에르 여자



오픈 우승을 차지하며 일본 남녀프로골프 사상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을 세운 이보미는 이번 시즌 JLPGA 투어 올해의 선수, 상금, 평균타수(70.19타) 등 주

요 3개 부문을 휩쓸었다. 또 이번 시즌 JLPGA 투어 37개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은 17승을 합작했다. 이보미가 7승, 신지애가 3승을 거뒀고 이지희와 전인진, 안선주가 2승씩, 김하늘이 1승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 선수 시즌 최다승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2012년 16승이었다.

또 올해 JLPGA 투어 4대 메이저 대회에서는 전인지가 2승, 신지애가 1승을 거뒀고 남은 1승도 대만 출신 테레사 루가 차지했다. 최근 J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는 6개 대회 연속 외국 선수 우승자가 나왔다.

연합뉴스